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감비아, 여성 할레 9년 만에 재개되나?



감비아에서 여성 할레가 금지된 지 9년 만에 다시 이슬람 전통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다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9일 AP통신 등을 인용, 감비아 의회가 지난 18일, 2015년에 제정된 ‘여성 할레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전체 의원 58명 중 47명이 참석, 42명이 찬성하면서 해당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 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할레가 허용되게 된다. 이번 폐지 법안을 제출한 알마메 기바 의원은 “법안은 종교적 충성심, 문화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추구한다”며 “할레 금지는 문화·종교 실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난 (딸의) 아버지라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앰네스티의 미셸 에켄도 “여성 할레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면 여성 권리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번 할레 금지법 폐지안 발의에 앞서 감비아에서는 지난해 할레 금지 법안에 따라 시술자 3명에서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에 한 이슬람교 지도자인 이맘이 “여성 할레는 종교적 의무”라며 할레 금지법 폐지 운동을 일으켰다.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감비아에서는 여성 할레가 종교적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어 2015년에 여성 할레 시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실제 단속은 없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감비아의 15-49세 여성의 76%가 할레를 받았다.

여성 할레는 성욕을 억제하고,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정당화돼 왔지만, 의료 목적과 상관없이 비위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 추후 합병증은 물론 심하면 숨지는 사례도 발생해 각국 정부는 여성 할레를 불법이자 악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 등은 15세 이하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료 목적과 상관없이 성기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는 여성 할레를 전면 근절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할레를 겪은 여성이 8년 전 조사 당시 2억 명보다 약 3,0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세계 곳곳에선 여전히 할레가 자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4-5,30)

하나님, 여성의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하는 할레를 이슬람의 의무라 주장하며 다시 종교적 악습을 법제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주께서 파하시고 감비아의 법안 통과를 막아주십시오.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된 할레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세계 곳곳에서 자매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을 강행하는 이들 가족과 사탄의 거짓을 꾸짖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일의 경험이 공포로 남아 지금도 고통당하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여성들을 위로하시고 무슬림 가족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시라 주의 법도를 지키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미국, '북한에 고문 증거 없다'는 중국 주장 일축·증거 문서화

미 국무부는 22일 “중국 정부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3일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이며, 북한에서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 증거가 없기에 고문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대변인은 “탈북민들은 복송 뒤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여러 해 동안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문서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브리서 11:16)

하나님, 굶주림과 가난, 억압을 피해 나온 탈북민들을 불법 체류자로 잡아 다시 복송하여 고문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는 북한과 중국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중국 정부가 유엔과 주변 국가들의 권유를 수용하여 탈북자들의 복송이 중단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영원한 삶의 보증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탈북자들을 섬기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선교사들과 기독교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찾는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 에콰도르, 최연소 시장 총격 피살·정치인 피살 잇따라

27세의 에콰도르 최연소 시장인 브리짓 가르시아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로이터·AFP통신을 인용, 뉴스1이 25일 전했다. 에콰도르 경찰은 가르시아 에콰도르 산 비센테 시장과 자이로 루어 홍보국장의 시신이 총상을 입은 상태로 마나비주의 한 렌트 차량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시장은 시민혁명운동(RC) 소속으로, 지난해 26세의 나이로 에콰도르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됐다. 현재 에콰도르는 갱단의 폭력 사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혼란기를 겪고 있다. 정치인들의 피살 사건도 잇따라 작년 8월에는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에콰도르 대선후보가 선거 유세 직후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의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이사야 1:27-28)

하나님,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갱단의 횡포와 나라의 부패를 공의와 평화로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오니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여 주소서. 유력 정치인을 표적 삼아 이들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어두움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로 에콰도르를 다스려 주십시오.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구속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비를 주시리라”

차드 난민캠프, E형 간염 확산...수단 난민 55만 명 거주



차드 동부의 난민캠프에서 E형 간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국경없는의사회가 경고했다. 이곳은 1년 전 이웃 수단에서 발생한 분쟁을 피해 피신한 55만 명 이상의 수단인들이 머물고 있다. 차드 우다이 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난민캠프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깨끗한 물 부족으로 인해 E형 간염 확산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E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해 전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며 치명적일 수 있다. 간 염증을 유발하며 임신부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아드레, 아벵게, 메체, 알아차 캠프에서 부적절한 위생 시설과 깨끗한 물에 대한 주민들의 제한된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E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다. 현재까지 임신부 11명을 포함해 난민 중 무려 954건의 E형 간염 사례를 기록했으며, 4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대부분 사례(469건)는 아드레 캠프에서 발생했는데, 수용인원이 넘은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삼은 12만 2,000명은 정착이 가능한 캠프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드레 캠프는 화장실 하나에 677명을 수용해야 하고, 메체 캠프에는 화장실 하나에 225명을 수용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에르노 코디네이터는 “모든 캠프 상황이 심각하다”며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없다면 질병과 불필요한 인명 손실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아드레, 아벵게, 메체, 알아차 캠프에서 식수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하루에 11리터의 깨끗한 물만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긴급 상황에서 권장되는 1인당 하루 20리터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다.

일반적으로 4-5월까지 지속되는 건기가 임박하면서 기온이 높아지면 물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가용 대수층의 크기는 감소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원에 힘쓰고 차드 정부의 난민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식량, 물, 임시 거처 부족은 물론 열악한 위생환경까지, 고향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난 사람들은 매일 악전고투 중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요엘 2:18,23)

하나님, 내전을 피해 나온 타국의 난민캠프에서조차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생명의 위기에 놓인 수단 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구호에 애쓰고 있는 단체와 차드 정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교회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 저들의 목마름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극동방송, '차별금지법 비판 방송 2심 패소' 상고하기로...원심 파기해야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으로 행정소송 중인 극동방송이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7월 9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간에 '특별죄담회 포괄적차별금지법 긴급진단'이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반복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행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면 특혜를 받게 되고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설교를 방송한 방송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올 2월 말 2심 재판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극동방송은 방송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종교적 입장에서 진단하려는 취지 방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만일 극동방송이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게 되면 극동방송을 포함한 양심적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극동방송은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승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15)

하나님,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방송으로 복음 전파에 힘썼던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비판 방송으로 인해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음을 주께서 돌봐 주십시오. 승패에 따라 극동방송뿐 아니라 진리를 파수하는 언론들과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에 주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로 깨어나 군사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단체와 관계자들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연합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 전 세계 유명한 4,000명,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전 세계 유명한 4,000명가량이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 이미지 합성 조작물) 음란물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을 인용,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영국 방송사 채널4 뉴스는 방문자가 많은 딥페이크 웹사이트 5곳을 분석한 결과, 영국인 250명을 포함한 4,000명가량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여배우, TV 스타, 음악가, 유튜버 등이 포함돼 있으며 분석 대상 딥페이크 웹사이트가 3개월간 1억 뷰를 기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2016년 온라인상 딥페이크 음란물은 단 1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작년 1-9월 사이에만 이용자가 많은 40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에 무려 14만 3,733개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올라왔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5:12,21)

하나님,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약 14만 4천 배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발생한 이 무서운 죄의 확장성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유명인들의 얼굴을 조작하고 이용하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취하는 제작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더 이상 죄가 왕 노릇 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의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본받는 성도들을 통해 모든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의지한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기독교 소녀, 무슬림에 납치돼 강제 결혼 고통...납치됐던 학생, 2주 만에 풀려나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 소녀와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당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있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23일 전했다.

수십 년 동안 서아프리카의 여성과 소녀들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강간, 성병,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시달려 왔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소녀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강제 결혼을 하거나 납치범들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

2021년 유네스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4세 나이지리아 여성의 30% 이상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으며, 같은 연령대 여성의 12%는 15세 생일 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 중 상당수는 소녀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결혼하거나 고문과 죽음을 당할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 이후에 이뤄진 선택이다.

기독교 소녀들에 대한 공격과 납치는 보코하람으로 알려진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테러리스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소녀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끔찍한 학대를 가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4월, 나이지리아 치복의 한 중등학교에서 발생한 276명의 여학생에 대한 보코하람의 납치 사건이다.

생존자 중 한 여성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하루가 100일간 지옥에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치된 276명의 소녀 중 98명은 여전히 보코하람에 포로로 잡혀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두나주 쿠리가 마을에서 집단으로 납치됐던 학생 137명이 2주 이상 억류됐다가 풀려났다고 A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들과 함께 납치됐던 교직원 한 명은 감금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나이지리아 학교에서 납치된 학생 수는 최소 1천 400명이 넘고, 이달에만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대규모 납치 사건이 최소 6차례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600명이 넘는다고(출처: 복음기도신문, 연합뉴스 종합).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편 56:1,3,11)

하나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강제 결혼과 납치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영혼들을 돌아보사 악한 자들의 압제와 온갖 악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의지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무슬림의 악행이 멈춰지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억압에서 풀려난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아직 붙잡혀 있는 자들도 속히 건져주셔서 살아서 돌아와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 파키스탄 법원, 기독교 소녀 납치한 무슬림 남성에 소녀 양육권 허용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한 기독교인 부모의 13세 딸을 납치한 무슬림 남성에게 딸의 양육권을 허용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7일 전했다. 샤킬 마시흐의 딸 로쉬니 샤킬은 3월 13일 마시흐와 그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무슬림 남성 무아잠 마자르(28)에게 납치당했다. 마시흐의 아내 나지아 샤킬은 3월 18일 가족들이 딸을 찾지 못하자 라호르 고등법원에 인신 보호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25일, 시탈마리 경찰은 딸 로쉬니와 마자르를 라호르 고등법원 법정에서 출두시켰다. 그러나 판사는 사건 서류를 제쳐두고 딸에게 '자유 의지로 마자르와 결혼했느냐?'는 한가지 질문만 했다. 로쉬니는 기꺼이 그렇게 했고 마자르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하자 판사는 결혼을 축하하고 남편과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쉬니의 부모는 딸의 연령과 2주 이상 피고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판결했다.

악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나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잠언 12:5-6)

하나님, 납치로 하루아침에 딸을 잃어버린 기독교 부부의 애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린 소녀를 납치하여 정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무슬림의 도모를 꾸짖어 주십시오. 억울한 자의 송사를 외면치 않는 주께서 공의를 비추사 편파적 판결로 무슬림의 손을 들어준 판사와 법원의 거짓과 속임을 부끄럽게 하시고 속히 어린 딸을 부모의 품으로 인도하소서. 법과 제도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승리하는 파키스탄 되게 하옵소서.

▲ 브라질 동성 결혼 20% 증가·2022년 1만 1,000건 등록

브라질의 동성 간 결혼 건수가 2021-2022년 사이 20% 증가하며 이성 결혼 증가율의 5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동성 결혼 등록 건수는 1만 1,000건으로 전년 대비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이성 간 결혼 증가율 4%의 5배에 해당한다. 동성 간 결혼 중 여성 커플의 결혼이 약 60%를 차지한다. 이번 통계 조사는 등기소에 등록된 민법상의 결혼만을 고려했다. 이번에 발표된 동성 간 결혼 건수는 2013년 브라질에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동성 간 결혼은 전체 결혼의 1.1%에 불과하나 브라질의 북부, 동남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브리서 3:14-15)

하나님,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한 뒤로 최고 수치를 보일 뿐 아니라 이성 간의 결혼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는 어둡고 혼탁한 브라질을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시작된 동성애의 비참한 말로를 이들이 외면치 않게 하시고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들이 먼저 밝히 보이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여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